



지난11일 오전 광주광산구광주송정역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시스

광주시내버스 파업 장기화... 노사 임금 인상폭 '팽팽'

광주 시내버스 파업 재개 9일째 접어든 17일 노사가 여전히 임금 인상폭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 광주시내버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에 줄곧 임금 8.2%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광주 버스기사 임금에 7대 특·광역시 중 낮은 편에 속한다며 임금 상승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 부담을 낮추는 버스 요금도 타 지역보다 낮다고 강조하고 있다.

운전 기사 평균 임금은 인천이 523만원으로 가장 높고, 울산·서울 515만원, 부산 499만원, 광주·대전 459만원, 대구 454만원 순이다. 광주는 버스기사의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천과 비교해 임금이 64만원 차이난다.

특광역시 버스요금은 부산 1550원, 대구·대전·서울·울산·인천 1500원, 광주 1250원 수준이다.

노조는 “광주 시내버스 요금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다. 광주시가 정치적으로

협상 재개 조건 노조 최소 5% vs 사측 2.5%

노조”기사 임금·요금 낮아” 사측 “적자부담”

‘전국최고’ 인천 임금 523만원, 광주459만원

광주시, 적자 1402억원...요금 인상안 검토도

로 무료 환승과 17·18일 무료 운행을 하고 있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임금 2.5%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 버스 운영 원가의 70%가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에서 임금 대폭 인상은 재정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운송 원가 2467억원 중 약 71%인 1765억 원이 운전·정비·관리직 임금에 투입됐다.

실제 광주시내버스 적자액은 5년만에 2배 늘었다. 지난 2019년 700억대 수준이던 것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 1162억원을 넘어 지난해 1402억 원을 기록했다.

광주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버스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사후 조정을 열었지만 노사 측이 점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파업을 중단하고 교섭을 시작하는 조건을 두고 사측은 임금 2.5% 인상을, 조정 위원들은 최소 3%대에서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최소 임금 5% 인상을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파업에 따른 광주 시내버스 운행률은 79.2%를 기록하고 있다.

파업 참여율이 많아 운행 차질이 빚어지는 순환 01번과 봉선37번 노선에는 전세버스 총 6대를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박도일 기자

금타 화재 잔재물 황룡강 유출 “중금속 성분 기준치 초과 안해”

‘구리·철’ 유출 당일엔 소량 증가... 청정 지역 기준 유지

물 오염도 총유기탄소량은 ‘보통→약간나쁨’ 일시 악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잔재물이 인근 황룡강으로 유출됐지만 하천 내 중금속 성분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출 당일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총유기탄소량이 평균 ‘보통’ 수준에서 ‘약간나쁨’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소촌동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화재 따른 잔재물이 인근 황룡강으로 흘러든 지난 14일 수질 검사를 진행했다.

광산구는 황룡강 배수문 하부와 장록교에서 납 등 중금속과 TOC(총유기탄소량)과 T-P(총인), 용존산소량과 같은 19가지 항목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장록교 인근 하천의 중금속 성분은 소량 증가했으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의 경우 평균 10당 0.001mg에서 유출 당일 0.008mg로 증가했지만 청정지역 기준인 1mg이하를 기록했다.

용해성 철의 경우 0.498mg에서 유출 당일 0.826mg로 늘었지만 청정지역 기준인 2mg이하를 기록했다.

카드뮴과 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총유기탄소량은 일시적으로 악화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생활환경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유기탄소량이 배수문 하부와 장록교에서 리터 당 각 5.7mg, 5.5mg인 ‘약간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한 달간 장록교 총유기탄소량 평균이 4.1mg인 ‘보통’ 수준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화재 잔재물 유출된 당일 오염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속에 포함된 유기물에 있는 탄소의 총량을 의미하는 총유기탄소량은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등급은 7단계(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로 나뉜다.

장록교 용존산소량도 평균인 리터 당 6.2mg보다 낮은 3.5mg을 기록했다.

당일 총인 포함량도 장록교에서 리터 당 0.303mg으로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장록교 평균 총인량은 0.106mg으로 보통 수준이다.

잔재물 유출 이후 물고기 떼 죽음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이승원 기자

전국 국립공원 중 탐방객 만족도 1위는? ‘광주 무등산’

전체 23곳 중 ‘전반적 만족도’ 4.02점... 시설·여행비용·추천 의향서 전국 최고점

광주를 대표하는 명산(名山) 무등산이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탐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객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이 발표한 ‘2024 국립공원 여가·휴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등산국립공원은 전반적인 탐방 만족도에서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가장 높은 4.02점을 받았다.

앞서 2023년 조사에서 무등산은 3.94점을 받아 제주도 한라산(3.99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었다.

광주·전남 지역 또 다른 국립공원은 지리산 3.96점, 월출산 3.89점, 다도해해상(여수·고흥·완도·진도·신안 등) 3.81점으로 집계됐다.

무등산은 시설 이용과 방문 이후 여행비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각각 3.82점, 3.89점을 받았다. 탐방한 국립공원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도 무등산은 최고점인 4.38점을 기록했다.

다만 전반적인 혼잡도에 대한 만족도는 3.19점으로 국립공원 중 9번째 수

준이었다.

동반 유형을 보면 무등산은 친구·동료·연인과 함께 찾는 비율이 35.2%로 북한산(3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혼자 산을 찾는 비율도 북한산(14.3%), 소백산(12.6%), 한라산(12.5%)에 이어 12%로 전국 네 번째 수준이었다. 가족과 함께 방문한 비율은 48.4%로 22위였다.

대부분 국립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방문한 비율이 높았던 것과 달리 도심과 가까운 무등산은 홀로 등산을 하거나, 친구·동료·연인과 방문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무등산은 전국 국립공원 중 20대 방문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산의 방문객 연령대 비율은 20대가 15.1%로 가장 높았다. 산악형 공원인 한라산(11.5%)과 설악산(11%), 오대산(10%) 등과 비교해서도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많았다.

한편 국립공원 기본통계를 보면 지난 한해 무등산 탐방객은 총 241만3722명이었다. 지역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376만3467명, 월출산 51만3298명, 다도해해상 165만6687명 등이다.

/전광훈 기자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서석대에서 시민들이 인왕봉 전망대로 향하고 있다.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이 위치한 무등산 정상부는 1966년 군부대 주둔으로 출입이 통제됐다가 이년부터 상시 개방을 시작했다.

/뉴스시스

THE 28TH MUAN LOTUS FESTIVAL

제28회 무안연꽃축제

여름이 커지는 순간, 무안에서

무안 SUM : ON

6.26. - 6.29. 무안군 회산백련지

주최 무안군 주관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